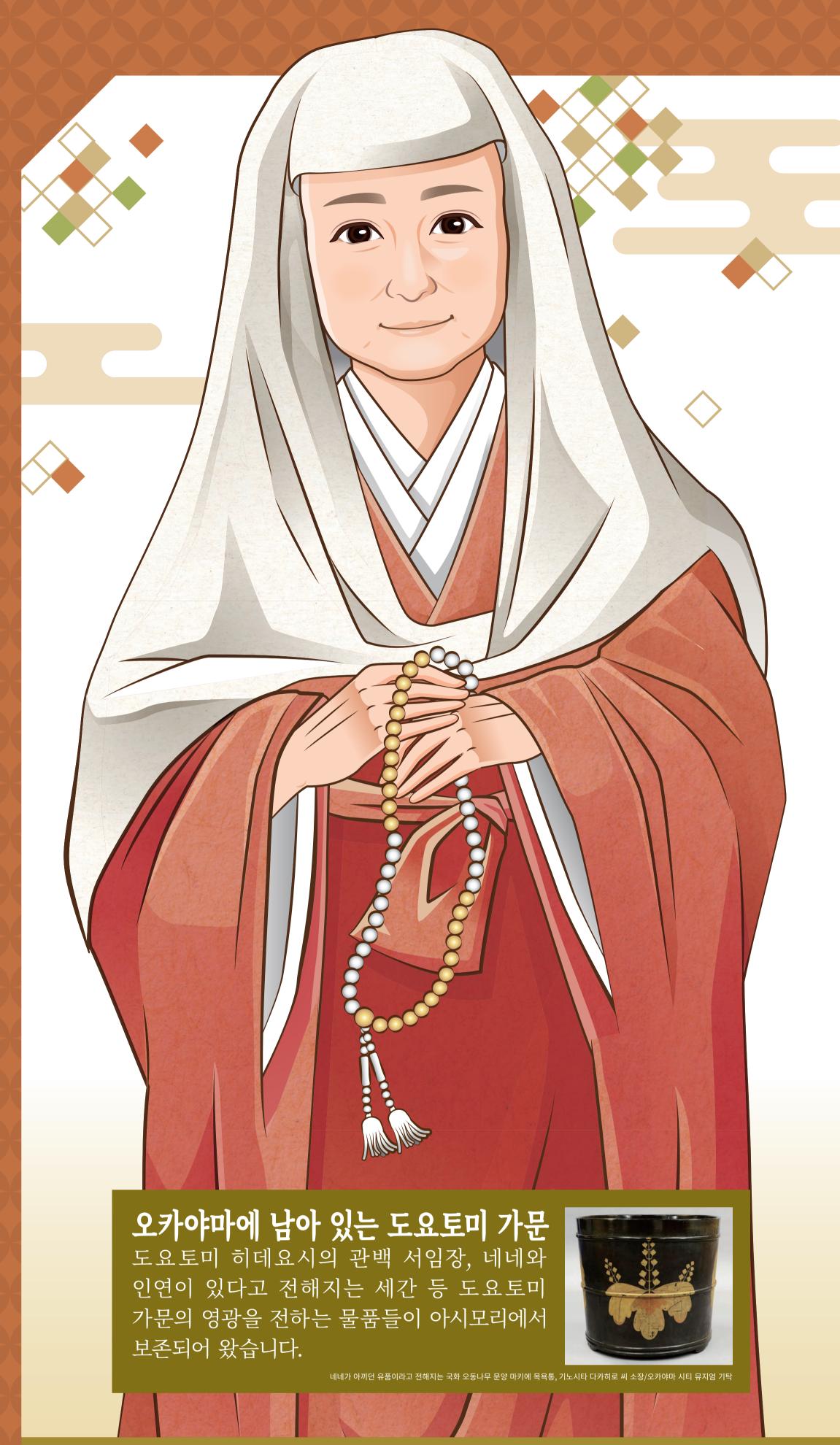
아시모리와 인연이 있는 인물 전

도요토미의 위대한 어머니 그 긍지가 아시모리에 살아 숨 쉬다



천하통일을 이룬 무장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내(정실). 친오빠인 기노시타 이에사다의 결단이 아시모리와 인연을 맺게 했습니다.

계기는 히데요시의 사후(1598). 도요토미 가문을 지탱해 온 네네와 후계자를 낳은 측실 요도도노와의 관계, 도요토미의 은혜를 입은 무장들의 분열, 그 틈을 타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무장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같은 상황에서 발발한 세키가하라 전투(1600). 기노시타 가문은 아들들이 도쿠가와 측과 반도쿠가와 측으로 나뉘었고 사나다 가문을 연상케 하는 괴로운 판단 끝에 이에사다 자신은 중립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시모리를 영유한 것이었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은 오사카 여름 전투 (1615)에서 멸망하지만, 기노시타 가문은 에도 막부 말기(1867)까지 존속합니다. 네네와 히데요시가 쌓아 올린 도요토미의 긍지는 이곳 아시모리에 대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549년~1624년)

더 알아보기! 네네와 기노시타 가문



기노시타 도시후사와 우키타 히데이에의 충신

네네는 세키가하라 전투(1600) 후 스스로를 고다이인이라고 칭하며 교토 히가시야마에 고다이지 절을 건립했습니다. 경내에 있는 엔토쿠인 절은 3대 번주 기노시타 도시후사의 법호에서 유래합니다. 도시후사의 아내는 신도 마사쓰구의 딸입니다. 마사쓰구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주군을 구한 충성심 깊은 인물로 전해지는 우키타 히데이에의 가신입니다. 마사쓰구의 아들 마사카쓰는 기노시타 가문을 섬기며 교토에 있는 번주를 대신해 아시모리에서 정무를 보살폈습니다.



와 히데요시는 사랑하는 고히메를 우키타 히데이에에게 시집보냈을까?

친자가 없어 많은 양자를 들인 네네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중 한 명, 친부가 마에다 도시이에인 고히메는 우키타 히데이에와 혼인합니다. 우키타 가문은 히데요시의 중국 공격 (1577~1582)과 천하를 차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히데이에는 도요토미 가문을 섬기는 차세대 영웅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노시타 가문 히지번(오이타현 히지마치)

네네의 조카이자 기노시타 이에사다의 셋째 아들인 노부토시는 세키가하라 전투(1600)에서 의형 호소카와 다다오키와 함께 도쿠가와 측에 합류하여 히지번(3만 석)의 초대 번주가 됩니다.

노부토시가 축성한 히지성은 지금도 높은 돌담이 벳푸만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